

제4-1분과

목회자-재직-평신도간 복지실천의식 비교 연구

김 기 원(서울장로회신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역사적으로 교회는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로서 역할을 오랜 동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교회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교회의 복지사업이 일시적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사회에는 복지공백(welfare vacuum)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공백을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가 메꾸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종교적 이념과는 관계가 없는 통치권에 바탕을 둔 비종교적 공공복지에 의해 대체되는 소위 '사회복지의 세속화(secularization of social welfare)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우리 주위에는 교회의 위기라는 말들이 종종 들리고 있다.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민중으로부터 유리된 체,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세우기 보다는 지상의 권위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일부 극단의 현상들을 우려하여 나타나는 말이다. 이러한 위기는 성장의 위기, 재정적 위기, 신앙의 위기, 말씀의 위기, 교회론의 위기 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실천의 위기'인 것이다. 교회에 사회봉사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력과 실천능력의 부족은 신앙의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민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독교가 민중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으며,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의 장인 사회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이 교계 전반에 확대되어 갈 때 본래의 모습인 '사회복지의 탈세속화(de-secularization of social welfare)'현상이 다시금 일반화되어 갈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어느 특정 구성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회자 재직 평신도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집단간의 특징과 복지관련 태도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관련

변수들이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 기존의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학자와 목회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는 일원론이나 이원론이냐 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되어지기도 한다. 이원론자들은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사회봉사는 세속적인 것으로서 사회봉사가 교회의 주된 활동이 될 수 없고 단지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원론자들은 사회봉사는 교회가 행해야 할 본질적인 책임인 동시에 우선적 행위로서 봉사적인 삶이 곧 영생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교회지도자들의 의식이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속에서 디아코니아(섬김)는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머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 명령이다. 한국의 교회가 섬김형 교회로 거듭날 때 교회의 참된 생명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지칭할 수 있다.²⁾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³⁾

교회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선교, 교육, 찬교, 봉사, 예배 등을 들고 있다.⁴⁾⁵⁾⁶⁾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동의되지만 무엇이 왜 더 중요한 사명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소극적인 이유로는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교회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개교회주의, 성장제일주의 하의 대형화 추세, 수평적 사랑의 실천 소홀 등을 들 수가 있다.⁷⁾

교회의 섬김은 참다운 이웃이 되는 것은 항상 사마리아인의 섬김(Samaritan diakonia)을 본받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탐욕에서 나온다. 이는 성경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⁹⁾ 교회는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¹⁰⁾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교회의 재정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으며, 역사가 짧은 교회가 오히려 사회봉사에 더 많은 비율의 재원을 지출하고 있고, 교인들의 사회봉사

- 1) 김명용 (1996), "교회에는 디아코니아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 두란노, pp.33-38.
- 2) 성종현 (1996),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본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교육교회,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연구원.
- 3) 김기원 (1995), "교회의 사회적 기능", 기독교와 사회복지, 예안, pp. 11-30.
- 4) 김태원 (1984), 교회의 교육적 사명, 종로서적, pp. 23-30.
- 5) 김석환 (1994),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 장로회신학대학, pp. 43-47.
- 6) 서광선 (1986), "디아코니아의 현대적 의미", 기독교 사상, pp. 99-103.
- 7) 신철이 (1992),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pp. 57-58.
- 8) Guillen, Victorio Araya. (1986), "The Samaritan's Diakonia", Diakonia 200 :Called to be Neighbours, WCC Publication, pp. 50-56.
- 9) Adney, David & et. al. (1987),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Transformation, pp. 1-9.
- 10) 최순남 (1995),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 한신사회복지연구, 한신대학교, pp. 175-193.

에 관한 태도가 교회사회봉사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현금 사용에 대한 희망은 주로 사회봉사사업, 교육문화사업, 전도선교사업 등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봉사에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이 6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허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0% 이하가 33%, 10-20%가 38%, 20-30%가 17%이고 30% 이상이 8%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내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선 섬김과 나눔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당회원을 비롯한 지도층의 헌신적 협조가 필수적이고 자원봉사자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영성훈련이 필요하다.¹⁴⁾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사랑의 현장갯기운동'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로 전달하는 복음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등한시한다는 사회의 비난에 대하여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¹⁵⁾

교회사회봉사나 기독교 사회복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교회사회복지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목회자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제적 실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성원들간의 역동적인 상황이나 성원간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없는 미흡한 면도 있다.

III. 표본, 기본 모델,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수도권 지역 교회를 모집단으로 하여 목회자, 재직, 평신도라는 계층적 집단들을 서로 분리하고 각 계층에서 일정 수의 표본들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 층화표본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택했지만 무작위 표본추출의 특성을 빠짐없이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표본이 모집단을 완전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전체 표본의 크기는 43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목회자가 168명, 재직이 151명, 평신도가 117명 이었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조사의 실시는 신학생들이 직접 교회를 방문해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일반적인 기독교 논리를 바탕으로 연구를 위한 기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1) 성규탁 외 (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p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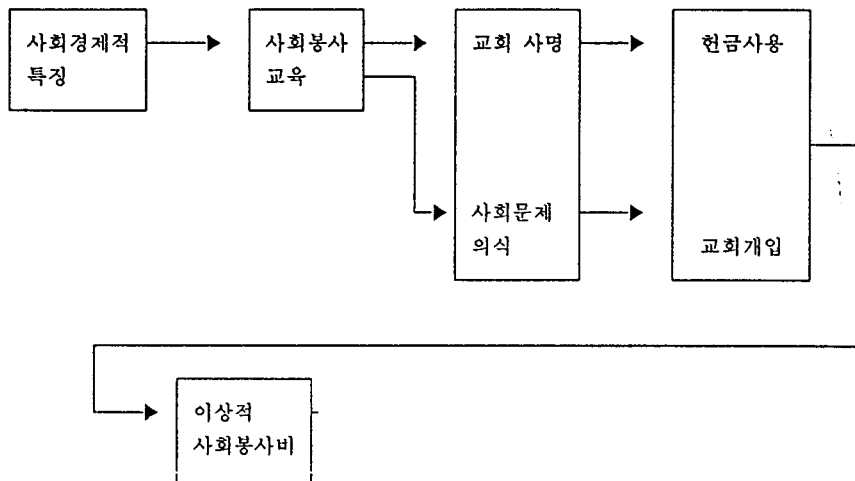
12)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사업협의회 (1984),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요람, 서울, p.7.

13) 방희덕 (1987), 신학논단, 17집,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pp. 447-475.

14) 손인웅 (1996), 디아코니아에 초점을 둔 교회 프로그램의 실제, 교육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pp. 1-7.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1987), 사랑의 현장갯기운동 훈련지침서, pp.2-3.

기본 모델상에서 사회경제적 특징은 표본집단들이 갖는 연령, 성별, 학력, 경제형편, 가족수, 교회설립년도, 출석인원, 예산총액, 교회 직분, 신앙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의식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이들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특징들이 신자들의 사회봉사교육 참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사회봉사교육의 참여 여부가 교회의 사명의식과 사회문제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서로 다른 교회사명의식과 사회문제의식은 교회가 행하는 사업의 실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교회사명의식과 사회문제의식은 헌금사용용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교회의 개입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이상적으로 사회봉사비가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1> 기본모델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제직, 평신도간 사회문제 의식, 교회의 사명의식, 복지관련 태도 등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단순통계방법으로 비교 분석한다. 둘째, 교회예산항목간에 어떠한 관계가 상호 존재하는지를 상관분석한다. 셋째, 기본 모델상에 나타난 결정요인들의 인과관계와 복지실천의식 결정요인을 Logit Model과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IV. 특징 비교

1. 사회문제의식 비교

표본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Likert-type scaling으로 측정하였다(1=매우 심각, 5=전혀 문제 없음).¹⁶⁾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문제인식도 비교

	전 체(N=436)		목회자(N=168)		재직(N=151)		평신도(N=117)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소득격차	2.00	.68	1.98	.62	1.95	.74	2.01	.66
성차별	2.58	.78	2.47	.82	2.69	.79	2.53	.64
절대빈곤	2.22	.79	2.30	.78	2.20	.78	2.14	.82
노인	1.97	.71	1.93	.67	1.97	.79	1.97	.64
아동	2.20	.71	2.18	.70	2.27	.72	2.12	.65
매매춘	2.08	.80	2.03	.76	2.10	.82	2.17	.82
청소년	1.64	.68	1.57	.64	1.62	.69	1.68	.70
가정폭력	2.28	.76	2.15	.70	2.39	.80	2.37	.74
퇴폐문화	1.63	.68	1.48	.58	1.64	.67	1.78	.73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들은 대체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준편차의 범위가 .68 - .80 사이에 속해 사회문제의 심각도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퇴폐문화는 그 심각도가 다른 사회문제보다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성차별의 문제는 응답자의 약 4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도가 다른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재직-평신도간 문제의 심각도를 비교해보면, 계층간 소득격차문제의 경우 이들 모두 매우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차별문제의 경우 이들 모두 그 심각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회자의 경우 재직이나 평신도 보다 미미하지만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빈층들이 겪고 있는 절대빈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간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문제의 경우 표본 모두 그 심각도가 다른 문제에 비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문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춘 문제의 경우 대체로 심

16) 설문지에는 사회문제인식도가 국가안보, 민주화, 전통상실, 치안, 환경, 지역감정을 포함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목회자의 경우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제의 경우 특히 다른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목회자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다른 문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목회자의 경우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퇴폐문화의 심각성에 대해 대부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목회자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회의 사명 우선 순위 비교

교회의 사명은 일반적으로 교육, 전도, 친교, 봉사(구제 포함)로 나뉘고 있다. 목회자, 재직, 평신도가 어떠한 사명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교회의 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네가지 사명에 관한 우선 순위를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회의 사명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1=가장 중요함

	전체(N=436)		목회자(N=168)		재직(N=151)		평신도(N=1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	1.96	.93	1.80	.80	2.15	1.02	1.95	.90
전도	1.45	.65	1.38	.52	1.40	.59	1.43	.57
친교	3.34	.79	3.39	.74	3.33	.79	3.29	.86
봉사	2.96	.92	3.08	.85	2.93	.94	2.85	.89
대응	N=64(14.7%)		N=28(16.7%)		N=20(13.2%)		N=16(13.7%)	

전체적인 순위를 살펴보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전도(1) - 교육(2) - 봉사(3) - 친교(4)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순위는 목회자, 재직, 평신도에 있어서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목회자의 16.7%, 재직의 13.2%, 평신도의 13.7%, 전체 표본의 14.7%가 어떤 사명이 다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 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있어서의 표준편차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어느 정도의 편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교회의 딜레마 내지 사명의식의 아노미 증후를 다소 찾아볼 수도 있다.

교회의 사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목회자가 재직이나 평신도에 비해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한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목회자, 재직, 평신도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교의 경우 가장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은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목회자의 경우 이러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의식의 우선순위에서 봉사가 목회자 재직 평신도간에 일관성있게 낮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교회사회복지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3. 복지관련 태도 비교

목회자, 재직, 평신도간 교회사회복지 실천방법, 실천정도, 이상적 사회봉사비율, 복지사업의 전도효과, 나태, 복지권 의식, 헌금의 우선 사용 용도 등 교회사회복지에 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들에 관한 서로 다른 태도는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 태도를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복지관련 태도 비교

	전 체		목 회 자		재 직		평 신 도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실천방법	2.21	1.27	2.07	1.26	2.22	1.27	2.37	1.28	
실천정도	3.66	1.05	3.69	1.02	3.76	1.06	3.39	1.09	
이상적비율	21.73	15.26	19.92	13.67	21.61	13.68	27.40	18.72	
전도효과	2.64	1.14	2.70	1.08	2.67	1.15	2.53	1.21	
나태빈민	0.62	.67	0.65	.76	0.70	.67	0.45	.50	
복지권	0.10	.29	0.05	.22	0.14	.35	0.03	.18	
헌금 우선 사용	교육	1.94	.91	1.85	.80	1.99	.92	2.03	.97
	전도	1.80	1.00	1.70	.86	1.70	.88	1.88	1.06
	친교	3.91	.85	3.96	.77	3.96	.86	3.82	.97
	봉사	3.06	1.03	3.16	1.00	3.07	.95	2.83	1.06
	건축	4.20	1.28	4.27	1.23	4.19	1.33	4.35	1.13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관해서 교회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복지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단지 그 부족분만을 자체 예산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거나 시설방문 등을해야 한다는 의견

이 거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견해와 잔여적 견해가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부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목회자 보다는 재직과 평신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재직 및 평신도 간에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11.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복지사업예산에 대해서 대부분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상적인 사회복지비율은 평균적으로는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목회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이 재직이나 평신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해서 대부분 미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게을러서 가난하게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40% 가량은 반대하고 있다. 현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전도(1)-교육(2)-봉사(3)-친교(4)-건축(5)의 순으로 나타나 교회의 사명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교회가 현금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현금의 사용에 관해서도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해 교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는데는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사회복지 실천방법:표본전체>

교회가 독자적	198
정부 부족분	64
정부 지원받아	65
시설방문	107
개입해선 안됨	3

V. 예산항목간 상관관계분석

교회 예산의 책정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교회건축에 18.5%, 전도에 12.9%, 예배에 10.4%, 구제봉사에 11.5%, 교육에 13.0%, 교역자 사례에 17.5%, 교회유지에 16.3%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배정된 예산항목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의 경우 건축비, 교회유지비, 사례비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전도비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배비와 교육비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축비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유지비가 많은 교회일수록, 목회자 사례비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사회복지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도비가 많은 교회일수록 사회복지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봉사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축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항목별 예산배정간 상관관계

	건축비	전도비	예배비	사회봉사	교육비	사례비	유지비
건축비	1.000	-.347***	-.158***	-.301***	-.319***	-.223***	-.256***
전도비	-.347***	1.000	.030	.149**	.096*	-.254***	-.210***
예배비	-.158***	.030	1.000	-.037	.007	-.153	-.103*
봉사비	-.301***	.149**	-.037	1.000	.035	-.249***	-.263***
교육비	-.320***	.096*	.007	.035	1.000	-.163**	-.096*
사례비	-.223***	-.254***	-.153***	-.249***	-.163***	1.000	.018
유지비	-.256***	-.210***	-.103*	-.263***	-.096*	.018	1.000

*(0.10), **(0.05), ***(0.01)

다른 상관관계들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다른 모든 예산항목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건축비가 많을 경우 다른 모든 교회의 예산항목은 금액이 줄어들게 됨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일부 교회들이 답습하고 있는 거대교회지상주의가 교회의 실질적인 사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되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다. 전도비는 사회봉사비 및 교육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건축비 사례비 교회유지비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예배비는 건축비 사례비 유지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교육비는 건축비 사례비 유지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전도비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사례비는 건축비 전도비 사회봉사비 교육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교회유지비도 건축비 전도비 예배비 사회봉사비 교육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VI. 교회사회복지실천의식에 관한 인과분석

앞의 <표 1>에서 설정한 기본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과분석이 수행되었다;

목회자, 재직, 평신도에 대한 사회봉사교육은 교회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복지교육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목회자가 다른 사람 보다 복지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들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복지교육경험 여부가 교회의 봉사사명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목회자와 재직이 아닌 평신도일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사명의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와 재직

목회자-제직-평신도간 복지실천의식 비교 연구

들이 교회의 사회봉사의무에 관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반면 복지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해 사회 복지교육을 실시한다면 교회의 봉사의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6> 교회사회복지실천의식 및 실천 인과분석¹⁾

종속변수 독립변수	복지교육 (1=받음)	교회사명 (봉사)	사회문제 심각성	헌금사용 (봉사)	교회개입 정도	이상적 봉사비
출석교인	-.00001	-.00001	.00001	-.0000008	-.000006*	.0004
설립년도	.003	.004	.002	-.000007	-.000003	.071
예산	-.000007	.000005	-.0000001	-.0000003	-.000005**	-.00001
직분(1=목회자)	1.154*	.540**	-.229@	.156	-.003	-3.091
직분(1=제직)	.355	.430*	-.182	.098	-.024	-3.750
연령	.0009	.007	.008*	.003	.002	-.225@
학력	-.115	-.036	-.003	.143**	.076**	2.897@
경제형편	.342	-.015	-.138**	.041	.050*	-4.493*
가족수	-.076	.040	.015	-.020	.029**	1.169
출석년수	.002	-.001	.00008	.004	.0006	-.069
성별(1=남자)	.330	.012	.230**	-.035	.009	3.153
복지교육		-.284**	-.053	.098	.006	3.132
교회사명(봉사)				.658***	.017	1.154
문제의식				.156*	.244***	.218
헌금사용(봉사)						-2.587**
교회개입						-3.649@
절편	-7.840	-6.187	-2.692	2.153	1.222***	-88.603
R ²		.083	.311	.301	.120	.173
F(Log-likelihood)	(-128.35)	1.218	1.600	13.016	4.134	1.680

(유의도 수준: *(0.10), **(0.05), *** (0.01), @ (0.15))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그리고 남자일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금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교회의 봉사의무가 중요함을 인식할수록, 사회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인식할

수록 헌금을 우선적으로 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출석교인이 많은 교회에 소속되어있을수록, 예산규모가 큰 교회에 속해있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형편이 나쁠수록, 가족이 적을수록,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교회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사회봉사비가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분석하면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봉사에 헌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도 인식할수록, 교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이상적인 사회봉사비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이들 변수 가운데 이상적 사회봉사비의 크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헌금의 중요한 사용 용도가 봉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Ⅶ. 결 론

사회복지의 탈세속화(de-secularization of social welfare) 작업은 신앙의 공동체이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땅위에 보다 공고히 세우는 의미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이는 성경적 정의(biblical justice)를 실천하고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교회복지 사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복지사업은 어느 특정 구성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부분 목회자 재직 평신도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본들은 대체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퇴폐문화는 그 심각도가 다른 사회문제보다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목회자-재직-평신도를 비교하면 절대빈곤, 청소년 문제, 퇴폐문화에 대해선 목회자가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매매춘과 가정폭력에 대해선 목회자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교회 사명에 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도(1) - 교육(2) - 봉사(3) - 친교(4)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순위는 목회자, 재직, 평신도에 있어서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상당수는 모두가 다 똑 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에 대한 낮은 사명의식과 낮은 헌금사용 순위는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도적 견해와 잔여적 견해가 거의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부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목회자 보다는 재직과 평신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재직 및 평신도 간에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예산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봉사비의 경우 건축비, 교회유지비, 사례비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전도비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배비와 교육비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는 다른 모든 예산항목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최근 일부 교회들이 답습하고 있는 거대교회지상주의가 교회의 실질적인 사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다. 사회봉사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건축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으로 사회봉사비가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분석하면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교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이상적인 사회봉사비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가운데 이상적 사회봉사비 비율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헌금의 중요한 사용 용도가 봉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목회자와 재직들이 교회의 사회봉사의무에 관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복지교육이 봉사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해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한다면 봉사의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교회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재직-평신도간에 교회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데 관련된 의식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가 교회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은 우선순위와 교회 건축이다. 사명의식과 헌금사용에 있어 낮은 우선순위는 사회복지교육을 통해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거대교회지상주의와 같은 교만한 사고는 교육에 앞서 목회자, 재직, 평신도 스스로가 기도와 회개를 통해 겸손한 마음을 되찾고 지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정립하는데 헌신함으로써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